

'KREI리porter' 충남지회 간담회 결과

1. 개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및 지회 활성화 방안 논의
- 일 시: 2018년 12월 20일(목) 11:00~15:00
- 장 소: 충남 부여군
- 참 석: 총 15명
 - 충남지회 리porter(12명): 도영미, 박인범, 박진수, 유영순, 이봉용, 이상근, 장석우, 정태천, 조현철, 표희윤, 육범수, 최영호
 - 리porter 외 농업인(1명): 박종필
 - 연구원 관계자(2명): 박혜진 선임주무원, 김미리 주무원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00~12:30	간담회	- 농업·농촌 현장여론 - 지회 활성화 방안
12:30~14:00	점심식사	- 장소: 장어촌
14:00~15:00	견학	- 부여박물관 견학

2. 주요 논의 내용

- 쌀 직불제 개편방향에 대한 현장여론
 - 도영미: 농촌 현장에서는 쌀 직불제가 어떻게 바뀌는 지 상세한 정보가 없다. 매년 정책이 바뀌면서 홍보를 하지만, 설명도 어렵고 농업인에 와 닿는 정보가 부족하다.
 - 이상근: 쌀 직불금으로 인해 농지 매매가 더욱이 어려워졌다. 논 지주는 농사는 안 지으면서 임차해주고 직불금만 받는다. 본인은 논 2만평을 임차해 농사짓는데 처음 임대차 계약 당시 쌀 직불금을 지주에게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넣었다. 그것을 거절하면 임대차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농업정책이 바뀔 때 정보에 발 빠른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것 같다. 농가 당 정부 지원사업의 상한을 정하는 등 형평성에 맞게 개편되면 좋겠다.

- 표희윤: 직불제 때문에 농지 임대료가 비싸진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쌀 경영면적을 줄이기 위해 다작물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나, 직불제를 없애면 오히려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경우 임대료가 낮아져야 하는 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제 생산자에게 생산비 보전 등 장려금의 형태로 전환하면 좋겠다.
- 도영미: 쌀 직불제를 없애서는 안 된다. 농업인이 잘 살자는 뜻에서 한 마음으로 얻어낸 지원이다. 소작농과 지주 간의 적절히 분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 박진수: 쌀 직불제는 농업소득 보장을 위해 생겨났다. 물론 지주와 경작자 사이에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쌀과 농지를 유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농업인이라면, 쌀 직불제의 목적을 이해하고 정책의 개편 방향을 논해야 할 것이다. 지주도 농지에 대한 세금도 내어야 하고, 구입에 따른 부채를 상환하는 부담이 있다. 고액의 직불금을 받는다고 다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지회 활성화 방안

- 박진수: 위촉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리porter 의무라는 것을 다하지 않으면 해촉해야 맞다.
- 장석우: 활동을 원치 않는 회원, 너무 바쁜 회원, 전화를 안 받는 회원 모두 해촉하고 활동의지가 있는 새로운 회원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만큼 힘든 것이 없다. 연구원 측에도 계속 요구했듯이 지회 활성화는 회원 교체부터 시급하다.
- 김미리: 리porter 기수제가 생긴 이후는 활동 부진에 따른 해촉에 있어서 일부 회원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3년의 임기는 참여하던 안하던 함께 리porter 이름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했다. 다만, 위촉

당시 리포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는지 리포터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거나 본인 의사에 의해 해촉을 원하는 분들을 계속 함께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19년 연초에 회원별로 계속 활동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본인 의사에 의해 해촉절차를 밟되, 그 이후 재위촉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 위촉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으니 연구원에서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토록 하겠다.

- 박혜진: 리포터 간담회에 와주시는 분들이 제일 열성적이고, 감사하다. 그렇지만 모두가 바쁘고 하루 이틀 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리포터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었으면 한다. 리포터를 보내주시고,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토론 또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갈 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간담회에 오지 않더라도 각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서운함이 없으시길 바라고, 좀더 모임 인원이 많아지려면 프로그램도 잘 구상하고 적극적인 회원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근: '재미'가 있어야 모인다. 리포터 모임이라고 해서 만나면 항상 딱딱한 주제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는 농사도 소개하고 지역의 볼거리나 체험도 함께 하고 친목과 재미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충남지회가 활발해질 것이다.
- 장석우: 충남 뿐만 아니라 충북, 전북 등 다른 지회와도 연합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퍼져 나가야 한다.
- 조현철: 지난 8월에는 회원 모두 바쁘다고 하셔서 주말에 모임을 가졌는데, 연구원에서 참석하지 않아 아쉬웠다. 내년에는 연구원에서도 함께 참석해 다시 한번 우리 농장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겠다.

3. 이모저모

